

옛사람들의 글 읽기에 비춰 본 문해력 문제의 일 국면

류수열

한양대 국어교육과

rusual@hanyang.ac.kr

1. 문해력 저하라는 시각에 대한 의문

지난 3월에 방영된 EBS의 다큐멘터리 '당신의 문해력'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단어를 몰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다. 교사가 영화 <기생충>의 가제(假題)가 '데칼코마니'였다고 하자 학생들은 "랍스터요?"라고 되물었다. 단순한 우스갯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회 수업은 '양분', '위화감', '평론' 등의 단어를 풀이하는 시간으로 흘러갔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여주듯이, '요즘 것들', 즉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에 충격을 받고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왔다. 어휘력을 넘어 학력 저하의 문제로 전개되었고, 그 원인으로 평가의 부재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과연 충격적인 일이었을까? 조금 다르게 볼 여지는 없을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로 한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읽었다. 기자는 '오폭(誤爆)'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어느 정치인이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였다. 그러고는 "여기서 오폭은 '잘못 폭격했다'는 뜻으로"라는 말을 덧붙였다. 시사에 관심이 있어 신문을 읽을 만한 정도의 식견이 있는 독자라면, '오폭'의 뜻을 알 만도 하고 모른다고 해도 기사와 제목을 통해 짐작할 만도 한데, 기자는 친절하게도 그 뜻을 풀이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문해력 저하가 과연 이른바 '요즘 것들'만의 문제일까? 상기 사회 수업에서 등장했던 단어는 기성세대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기성세대의 언어를 '요즘 것들'이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 저하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경험도 있다. 소설은 언중의 평균적 언어 감각에 기대어 서술된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소설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장이 되겠지만, 이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해 온 필자 또한 최근에 낯선 단어를 만난 적 있다. <장화홍련전>을 읽어가다가 계모의 아들 장쇠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홀로 남게 될 홍련을 걱정하면서 "홍련의 자닝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나 같은 인생을 본받게 마옵소서.”라고 절규하는 장면을 만났다. ‘자닝한’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뜻을 모르니 ‘잔인한’의 오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렵다’는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 소설이 유행하던 당시의 어른들도 발표자가 이 단어조차 모른다고 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 접하지 않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국어의 어휘는 학습의 대상 이전에 습득의 대상이다. 그들이 이 단어를 몰랐던 것은 접해 보지 않았거나 접할 기회가 적어서일 것이다. 접하기만 하면 모든 단어가 습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하지 않고서는 습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요즘 것들’이 접하는 말이 기성세대가 접했던/접하는 말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까?

경험을 한 가지 더 소개한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배비장전>을 지문으로 하여 출제된 문항에서 답지 하나를 ‘징치’라는 말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진의 의견은 이 단어가 학생들한테 친숙하지 않아서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닌 어휘력이 관건이 되는 문항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좀 더 쉬운 말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쉬운 말만 골라서 접하게 하면서 어려운 말을 모른다고 탄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이어 어려운 말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검토진의 의견을 거부하고 말았다.

2. 문해력 저하의 배경에 대한 단상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명해 보이는 어떤 단어를 알고 모르는 차원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문제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해력(literacy)은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개인의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문해력은 중차대한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 더 나아가 언어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함양하는 것이 전적으로 국어교육의 몫으로 한정할 수 없다.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말처럼 특정한 분야에 대한 소양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 말이 가지는 현재의 의미역은 넓다. 문해력의 개념은 스스로 의미론적 진화를 거듭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넓은 의미역 안에서 발표자는 ‘단어를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이다(reading the word, reading the world)’라는

문장을 통해 표상되는 세상을 읽는 능력(Freire, P. & Macedo, D., 2005)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세상'은 '인간' 혹은 '인간사'로 대치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작품 하나를 읽어 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 <만언사(萬言詞)>의 한 대목이다.

약수(弱水) 삼천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烏鵲)이 다리
놓고 /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 내 가신(家信) 어이 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라 /
흐르나니 눈물이요 짓나니 한숨이라

'전신', '가신'은 요즘에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사전을 찾으면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약수 삼천리', '청조', '오작이 다리 놓고'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알 수 있는 의미이니 좀 더 깊은 탐색이 요구되는 표현이다. 이런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 저하를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접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전을 포함하여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라"라는 구절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화자가 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가족 생각 때문에 잠을 들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특히나 평가 상황에서 이런 답지를 구성하게 되면, 화자가 잠에 들 수 없는 이유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하는 의의가 제기된다고 한다. 물론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근거를 추론하는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기다리던 '가신'은 오랫동안 오지 않은 채 화자는 설날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에게 잠이 오지 않는 이유로 들 만한 사정은 무엇이 있겠는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문해력 저하의 문제를 단순히 어휘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게 되면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은 무망하다.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모조리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의, 인간의, 인간사의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문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해력의 심층에는 사고력이 놓여 있는 것이고, 이를 도외시한 채 문해력 저하의 처방을 말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는 접근이라 하겠다.

3. 다산과 연암의 독서법을 통해 본 문해력의 본질적 문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연암(1737~1805)과 다산(1762~1836)은 다독과 다작으로 유명한 지식인이다. 당대의 거의 모든 사대부들은 서로 공유하는 독서 목록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 방법에 대한 글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다산이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기로 하자.

만약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을 때 기조취도(既祖就道 : 조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한 구절을 보고 "조가 뭘니까?"하고 물으면, 선생님은 "전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하필 할아버지 조 자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여쭙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겠지. 그 후 사전을 가지고 조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고 다른 책의 풀이와 해석을 살펴, 뿌리를 캐고 지엽을 모은다. 또 통전, 통지, 통고 등의 책에서 조제(祖祭)를 지내는 예법을 찾아보고, 한데 모아 차례를 매겨 책을 만든다면 길이 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전에는 하나도 모르는 네가 이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을 훤히 꿰는 사람이 되어, 비록 이름난 학자라도 조제에 대해서는 너와 다투지 못할 것이다.

- 정약용, 「기유아(寄游兒)」

조제는 고대에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비는 제사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조(祖) 자를 쓰는지 궁금해진다. '조(祖)' 자에 왜 제사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선 스승이다. 그러나 스승도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럴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전이나 다른 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길 제사 지낼 조'란 뜻이 나오고 "먼 길을 떠날 때 행로신(行路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란 뜻풀이가 나와 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문헌을 뒤져보면, 아득한 옛날 황제의 아들 누조(累祖)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만나게 된다. 그제야 바로 조제가 누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생긴 제사임을 알게 된다(정민, 2010).

이제 연암이 경지라는 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기로 하자.

그대가 태사공의 [사기]를 읽었다 하나, 그 글만 읽었지 그 마음은 읽지 못했구려. 왜냐고요? <향우본기>를 읽으면 제후들이 성벽 위에서 싸움 구경하던 것이 생각나고, <자객열전>을 읽으면 악사 고점리가 축(筑)을 연주하던 일이 떠오른다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늙은 서생의 진부한 말일 뿐이니, 또한 부뚜막 아래에서 손가락 주웠다는 것과 무에 다르겠습니까.

아이가 나비 잡는 것을 보면 사마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요. 앞발은 반쯤 꿇고 뒷발은 비스듬히 들고,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해가 지고 살금살금 다가가, 손은 잡았는가 싶었는데 나비는 호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계면쩍어 씩 웃다가 장차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것이 사마천이 책을 저술할 때입니다.

- 박지원, 「답경지시삼(答京之之三)」

<자객열전>을 읽으면서 고작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던 일이 떠올린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식상한 독서법이라는 편견이다. 연암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표현을 선택해서 구사한 글쓴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데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산이 제안한 독서법에서 우리는 단어 하나에 대한 의문이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본다. 글을 읽고 의문을 떠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지난한 연쇄를 이룬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의문에 비례하는 지적 쾌락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 과정을 손쉽게 거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기기의 전성시대이다. 이에 반해 연암이 제안한 독서법은 스스로 사고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지적 작업으로 귀속된다. 이것이야말로 문해력의 최종적인 심급이 아닐까 한다.

문해력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중 하나다. 6,000년 전에야 인류는 문자 문화를 개화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6,000년간 진화해 온 '읽는 뇌'는 디지털 기기의 등장과 함께 그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어진 문화적 능력이기에 퇴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Maryanne Wolf, 전병근 역, 2019). 이는 종이책과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데이터나 정보의 습득에는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곧 문화적 능력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4. 마무리

사족 삼아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Literacy의 역어로 문해력, 문식력, 문식성 등이 선택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Literacy의 의미역은 이미 그 어원의 뿌리인 문자로부터 지나치게 확장되었다. 더욱이 '문해'나 '문식'은 동사+목적어라는 일반적인 한자어 구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굳이 '문자'라는 의미를 보존하면서 역어를 만들려고 한다면 '해문'이나 '식문'이 옳다. 이미 굳어져 있는 말을 고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정명(正名)의 미덕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시도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해력 등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의미역의 확장성을 고려한 대응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굳이 어색하게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도 없이, 우리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안식(眼識)'이나 '견식(見識)', '식견(識見)'을 그 대응어로 추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정민(2010),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Maryanne Wolf, 전병근 역(2019), 『다시, 책으로』, 어크로스.

Freire, P. & Macedo, D.(2005),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Routledge.